

One's Wish Comes True by Letting God Become Strong in Themselves

(This man refers to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Everyone has a thinking ability. Only if they have a focusing habit all the time, they can fight against their heart. The focus of thought should always be on God all the time. You should eat the Fruit of Life every time, then your blood changes. If you do not eat the Fruit of Life with your heart, then the blood cannot change. You must always fight with the heart to eat the Fruit of Life so that you can overcome yourself and can control yourself. If one's heart cannot be controlled, they cannot defeat themselves, also not only they cannot overcome themselves but also they are controlled by the devil always. Additionally, only when one has a habit of controlling one's heart, their heart focal spot should be on God, and the cycle of their heart start to fit that of God's heart. Your heart must be in the same as the cycle of God so that the Spirit of God can continue to come, then the spirit of God can occupy the heart of humans. If one starts to be ruled by God, they should fight against their minds.

One can defeat the devils only standing on the side of God

Beginning the fight of mind, fighting between God's mind and devil's mind, and standing on the side of God, the devil will lose and retreat. Therefore, one cannot be become God just by coming to the Victory Altar without fighting against the mind of the devils. Through fighting with one's fight and supporting God from the situation of God continually in order for the heart of God to overcome the heart of the devils, you can overcome the devil, only then God can become a Victor, winner, God becomes the awareness of 'I' finally. When the awareness of 'I' becomes God, one can become God.

Therefore, whatever you are doing, your mind should focus on God, only if you try to set the cycle of your mind to that of God, then fighting against the devils starts. Whenever fighting against the devils, if you defeat the devil, you can become Gods.

Have a heart of pleasing God

So you should stand on the side of God all the time, if your mind stands on the side of the devil, then you will become devils and go to hell. In order to stand on the side of God, you should have a heart of pleasing God, a loyal heart, and the mind of living for only God all the time, then you can become

Gods. You can not become God naturally.

You have to pay attention to everything of the Victory Altar

There is no the house of God except for the Victory Altar on the earth. So you have to take effort for the Victory Altar in order for the name of the Victory altar to shine globally, the seniors must fix the items of the Victory Altar if they go wrong, trim goods on the Victory Altar whenever we have time to prevent any loss, clean it up. If you let the Victory Altar, the house of God, dirty, or don't care about it, then it's also a devil's action. Regardless of rank, as it is the house of God, however you do, we should make sure that the house of God is no inferiority and that the altar is so beautiful and clean, right? You should make the Victory Altar clean and beautiful painting or trimming all the columns and stuff. That is for God.

Those who seek their profit, they do not receive the grace of God

However you do or no whatever you do, taking effort to please God, the grace comes to you. Otherwise, those who only seek their own work and self-interest will never receive the grace of

God. You cannot receive the grace of God just with coming to the Victory Altar and sitting there. You should clean it and decorate it as a holy castle enough for anyone to be admired.

Now you know everything. You surely know that humans are Gods, their blood is their lives, their blood is the spirit of Gods. However, there is the blood of God and the blood of devils in humans. So the spirit of God and the spirit of devil coexist in humans, as the spirit of Gods always loses to the spirit of devils, humans are ruled by devils, however you do this, in order for the spirit of God in me to be strong and defeat the devil, humans themselves have to be on God's side.

Pray all the time

In order to please God, you should sing hymns and pray all the time. Did This man teach you in the prison? That spell is "The Spell to Kill the Devil: Infinite devils, in a second, in infinite times, continually, forever, Rooting out all the Devil, Cutting them with the sword of the Holy Spirit, Beating him with the axe of the Holy Spirit Grinding them with the millstone of the Holy Spirit Buming them with the fire of the

Holy Spirit Cleansing them with the fire of sulfur bakmyeolsotang(eradicate), bakmyeolsotang"

This man told you to pray a prayer walking on the street, sitting in the altar, and pray a prayer for at least half an hour before you come to the altar. All the existing churches pray a prayer of asking their wishes, but the believers of the Victory Altar do a prayer of killing devils. The prayer of killing devils is a real prayer. It's not a prayer to ask what they want. When the devil dies in himself, everything he wants comes true.

Only if one's devils die, their will come true as they want

As God is the spirit, it knows what humans want and what they should achieve in detail. You do not need to say what you want to do, what you achieve and heal your disease. Only if one kills one's devils in them, their disease will be cured. Only if one's devils die, their business is supposed to go well. The prayer of killing devils is the one conveying to God most. God listens to the only the prayer of killing devils. People don't know how to pray, that's why This man says there is no religion in the world. People do not know the way of killing devils. A praying of

asking something what they want is not a pray.

Only if one becomes a strong God, their wishes come true

People do not know when a man dies, his spirit dies. If a person dies, that is, if his spirit dies, it means that his life dies, as the lives of humans is their spirits and the spirits of God, the spirit of God is the spirit of humans, as the spirit of God exists in humans, they live. People cannot live without the spirit of God. Then they die. Due to the spirit of God, we live. So we should be thankful to God all the time. Pleasing God all the time and making God happy are the duty of God's children.

As God and you are not separated, God is in you, though the awareness of 'I' is the devil, God knows you. That is, only when God become strong, it solves your problems. If God becomes weak and lose to the devil all the time, the man always become a slave of the devil, so God will become weaker. A disable God cannot solve your problem no matter how you ask a lot. Therefore, the God in you must become strong to solve all your wishes.*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Victor Christ of the Victory Altar on Dec.1th, 2000
Translation: Angela Kim

지난 글에 이어 노자가 내담자로서 자기 꿈을 얘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형식으로 도덕경 15장 약동섭천(若冬涉川)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涣乎 若水之將釋
환해 약빙지장석
: 흠어지기를 마치 얼음이 녹는 듯하며.

《노자》 “그렇게 얼어붙은 계곡 물(강물) 위를 헤매고 있었는데 말이요. 발밑의 얼음이 녹아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요. 내가 곧이라도 얼음장 밑으로 빠질 것만 같았는데 아, 내 몸도 얼음과 함께 녹아 부서지기 시작했소.”

《해석》 드디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은 나와 물을 가로막고 있는 나의 자존, 나라는 의식의 상징입니다. 그 얼음은 나라는 이름의 마귀 신이며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야말로 마귀 신의 대변자이자 마귀 신의 페르조나입니다. 나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신을 찾아 나선 그 뜨거운 용심(勇心)에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내 자신도 함께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란 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귀 나, 껌테기 나, 자존의 내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는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기쁘거나 서럽고 힘들어서 우는 인간적 눈물이 아닌, 내가 해체되며 나오는 눈물입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나라는 마귀가 죽어 그 시체가 눈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흘려보지 못한 눈물이어서 자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은 더욱 더 낫은 존재가 되어가

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도 잊어버리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지요.

《원문》
敦兮 其若樸
돈예 기약박
: 내던지는 그 모습이 마치 통나무와도 같다.

《노자》 “아, 그 때 알았소 지금이 내가 나를 던져야 할 때라는 것을. 그 순간 깨진 얼음과 함께 내 몸이 계곡 물에 내던져졌소. 이제 죽는구나 싶은 그 순간, 내 몸이 통나무가 되어 계곡 물과 함께 흐르고 있었소.”

《해석》 나를 항상 죽여라! '아상(我相)을 없애야 한다.'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흘러버린 번기 물처럼 사라지고 마는 건가? 내가 죽고 나면 대체 누가 나를 한다는 건지,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감이 안 옵니다. 내가 사라지고 소멸해 버리고 말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꿈의 장면은 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돈예는 '소박하다'의 뜻 외에도 '내던진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물에 던져진 나는 소멸할 것만 같지만 그는 나무가 되어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무의식의 바다에 몸을 던지면 나는 소멸할 것만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물에 빠지면 죽고 마는 인간이 아니라, 물과 함께 흐르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직 온전히 물과 하나가 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물에 빠져 죽을 일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저 흐릅니다. 나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와는

꿈에 대하여...〈8〉

부제: 꿈의 상징으로 풀어 본 도덕경2



다른 타자(他者)일 때, 얼어붙은 그 강물은 맑고 건너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와 무의식, 나와 하나님은 하나요, 나 자신입니다. 계곡물, 하나님도 실은 내 자신입니다. 내 내면에 흐르는 생명의 강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내가 나를 건너는 것이고 동화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하착(放下)입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나'를 놓는 것이 방하착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놓는 것, 하고 있는 '기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代身)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방하착(放下)입니다. 방하착은 현대의 언어로 바꾸면 교체(交替), 선수 교체, 존재의 교체입니다.

우선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몽땅 맡겨 자신을 내던져 통나무가 되는 이 한 순간의 변화는 돈오(頓悟)의 장면입니다.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 하나님의 신으로 변하는 첫 장면입니다. 약동섭천 이 장은 다른 버전의 돈오점수

(頓悟漸修)의 이야기입니다.

돈오(頓悟)는 한낱 알음알이가 아닙니다. 내 존재를 걸고 뛰어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영적 투신입니다. 묘처에 앉아 머릿속에서 이루는 경지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나'라는 의식의 자리, 주체영 자리를 내놓아야 성립하는 영적 계약의 결과입니다. 돈오(頓悟)는 '영적 투신자살'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신이 내 자리를 꿰차는 영적 순교와 부활의 과정입니다.

돈예 기약박(敦兮 其若樸) 이 장면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문》
曠兮 其若谷
광혜 기약곡
: 텅 비어있기가 마치 계곡 같고

《노자》 “그렇게 통나무가 되어 함창을 물과 함께 흐르니 내 자신이 텅 빈 것 같고 마치 내가 골짜기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이었소.”

《해석》 노자에게 있어 골짜기(谷)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골짜기(谷)는 아래로, 아래로 내려온 물이 모여 땅위로 솟구치기 시작하고 흐르는 신성한 곳입

니다. 지난 글에서도 다루었듯, 우뚝 솟은 봉우리가 남성성, 아상과 자존의 상징이라면 골짜기는 반대로 여성성, 모성(母性)의 상징이며 내가 낮아지고 죽는 자리입니다. 해서 『淮南자』(淮南子) 「추령훈」(墜形訓)편에서도

“높은 것은 삶을 주로 하고 낮은 것은 죽음을 주로 한다.

구름은 수컷이고, 계곡은 암컷이다.’ 라는 구절로 계곡을 내가 죽는 자리, 모성의 자리, 죽음을 통한 재생산의 자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는 물(水)과, 그 물을 품고 있는 골짜기(谷)는 하나입니다. 골짜기 없는 물은 제 존재를 드러낼 길이 없고, 물 없는 골짜기는 메마른 구렁이일 뿐입니다. 둘은 체(體)와 용(用)이요, 내용과 형식이며, 영과 육으로 하나입니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처중지소오處衆之所惡’ 지극한 선은 물과 같아 못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임한다.’는 말과 ‘곡신불사谷神不死’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는다.’라는 두 구절의 짝을 맞추어 보면, 물이 임하는 낮은 곳이 골짜기(谷)요, 그리되면 골짜기에 임한 물(水)이 바로 불사의 신(神)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곡(谷)은 곡신(谷神)이며 곡신(谷神)은 영육을 갖춘 불멸의 하나님의 신입니다.

통나무가 된 그는 더 이상 골짜기와 이질(異質)의 존재가 아닙니다. 골짜기(谷神)와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문》
混兮 其若濁
혼혜 기약탁
: 섞이는데 마치 탁한 물과도 같다.

《노자》 “그리고는 내가 점점 해체되어 물과 섞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흠탕물이

되어 맑은 계곡물과 섞이는 것 같았소.”

《해석》 통나무는 인간과 물의 중간적 존재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일은 없으나 아직 물이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여기사 한 단계 더 나아가 남아있던 개체성까지 해체되며 물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꿈의 노자는 이제 탁한 물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계곡을 건너려던 인간적 진행이 하나님의 신, 곡신(谷神)에 동화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높아지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던지고, 맡기는 과정을 통해 탁한 물이 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꿈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 인간에서 통나무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변해갑니다. 통나무가 되고 함창을 흘려 계곡과 하나된 다음, 다시 흠탕물로 변해갑니다. 점차 물 즉,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는 돈오(頓悟)에 이어진 점수(漸修)의 과정입니다. '맑이' '섞이' 되기까지는 견뎌야 합니다. '기름부음'으로 알개는 되지만, 기름이 부어지는 것만으로는 머리카락만 될 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통나무와 같은 개체가 다시 해체되어 흠탕물처럼 흠어지는 과정을 또 겪어야 합니다. 개체성을 잃고, 나라는 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점수(漸修)의 과정입니다.

약동섭천은 이렇게 돈오(頓悟)와 점수(漸修)의 여정을 한 프레임 안에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글입니다. 이 스토리는 내가 '나'인 채로 이루어지려는 자, 나라는 의식의 자리, 주체영 자리를 보전하려는 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용광로처럼 들끓는 그런 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후의 여정은 다음 글에서.*

金擇 / kimtaek8@nate.com